



임실군이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2018 임실N치즈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실N치즈축제 준비 박차

10월6일부터 9일까지 치즈테마파크·치즈마을 일원 "치즈애 반하다·임실애 끌리다" 관광객 몰이 나서

임실군이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2018 임실N치즈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대중성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임실N치즈축제는 지난 해 대성공에 힘입어 올해도 전국민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임실군에 따르면 군은 2018임실N치즈 축제의 슬로건인 치즈애 반하다·임실애 끌리다를 전면에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태세다. 군은 먼저 지난 달 치즈시장 부스 운영을 통한 치즈케어 계획을 수립,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선치즈에 비해 매출이 부진한 숙성치즈를 중심으로 시식과 전시, 판매하는 치즈시장을 열어 치즈축제에 걸맞는 다양한 치즈를

방문객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 해 전국적으로 45만여명이 찾아 대성공을 거두며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인정받을 만큼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축제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포스터와 전단지 등을 제작해 관내 유관기관과 읍면 마을회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되면서 국·도비 인센티브(1억5000만원)까지 확보, 작년보다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더 풍성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전국의 어린이 치즈요리경연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경연대회와 국가대표왕피자 만들기, 아모르파티, 천만송이

국화전시, 나만의 치즈체험 등 프로그램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미 군은 지난 해 축제가 끝난 직후부터 축제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 및 단계별 로드맵을 조기에 확정,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다. 지난 해 축제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개선책과 대안 등을 마련, 올해 축제에 반영해 보다 완성도 높은 축제를 만들어 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N치즈축제는 올해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치즈를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현재 추진중인 장미원이 조성되면 봄에는 장미와 함께, 가을에는 국화와 함께하는 치즈축제를 개최한다면 향후 5년 내에 100만명이 찾는 축제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서울초등학생 '순창 친환경농업' 서 만나요

11일까지 8개 초등학교 친환경벼 심기 등 체험

순창 친환경벼가 서울 소재 초등학교 운동장에 심어져 도시아이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순창친환경 농산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학교친환경농업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서울소재 8개 초등학교에서 태이친환경농업조합법인 농업인 등이 참여해 '학교친환경농업실천사업'을 추진해

도시 초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의 마을이나 단체와 도시 초등학교 간 협력을 통해 학교에 소규모 농업체험장을 만들고 벼 이앙, 생육관리, 추수행사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인들이 도시 학교와 신뢰모형을 창출해 학교급식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의 안정적 판로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 군자초등학교, 이문초등학교, 응두초등학교, 동작초등학교, 아현초등학교, 신목초등학교, 전동초등학교, 관악초등학교 등 8개 학교 3,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순창농민들이 직접 친환경농업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들과 모내기 체험을 진행해 도시 아이들이 접하기 힘든 친환경농업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며 농업을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취약계층 아동은 국가의 책무"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드림스타트센터에 생활용품 후원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순창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생활용품을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에 도움을 줬다. 이번 생활용품 전달은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LG생활건강, 예경산업 등으로부터 린스, 양치제, 세제, 음료수 등을 후원받아 전달했다. 기초수급자가정, 차상위 계층가정, 부모손가정, 소년 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아동 및 순창·풍산·구림지역아동센터,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순창군과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우리사회의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희망나눔 연결운동'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양기관 앞으로 저소득가정에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저소득아동들에게 물품기부, 재능기부, 장학금, 컴퓨터 지원할 예정이다.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 김동우 부회장은 "취약계층(빈곤가정)아동의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 하고자 이번에 생필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순창군 주민복지실 이선효실장은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거점으로 인문학을 향유함으로써 자신의 역사 성찰, 삶의 행복추구, 독서문화의 장 구축 및 확산 등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국의 도서관을 활용해 강연과 탐방을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자유기획, 자유학년제, 함께 읽기, 함께 쓰기 유형 중 남원시립도서관은 한국문화가 걸어온 시대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읽기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에 19회의 강연과 독서토론, 그리고 후속모임까지 총20회로 구성된다. 길 위의 인문학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남원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남원시립도서관(☎20-897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올해도 안전하고 즐거운 춘향제 치른다

남원시, 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 준비 점검

남원시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88회 춘향제를 안전하고 즐겁게 치르기 위해 빈틈없는 준비와 점검을 하고 있다. 남원시는 축제의 성공여부는 '안전'에 있다는 각오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참석할 가운데 지난 10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강대복 부시장은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과 행사담당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심의 위원들은 축제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행사별 안전관리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또, 축제행사장 질서유지 방안과 소방·전기·가스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시설물 사전 점검 등의 안전계획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이어 춘향 선발대회가 열리는 오는 17일에는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행사장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 비상대응태세, 축제장 안전성(시설물, 소방, 전기, 가스 등)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대복 부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춘향제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이자 안전하고 즐거운 전국 최고의 전통예술 축제의 명성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감염병예방 방역소독

임실군보건의료원에서는 고온기후의 영향으로 일본뇌염모기가 예년에 비해 일찍발견되는 등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0월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역소독은 방역소독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방역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일 읍·면 방역담당자 및 방역소독 요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약품 사용방법, 방역장비 수리와 사용법 등 방역 전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안전교육을 마친 읍·면지역 방역요원 17명을 배치해 읍·면 지역을 순회, 하수구, 하천, 공공화장실, 쓰레기매립장 등 방역 취약지역을 주회 이상 실시하고, 살충소독은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막소독도 병행 실시하게 된다. 의료원은 지난 2월~4월에 생활주변의 모기 유충 서식장소가 되는 웅덩이나, 정화조 등 유충 방제제를 투입하고 친환경 위생해충 유인 퇴치기 5대를 생활체육공원에 설치하여 위생해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바 있다. 임실군보건의료원 김영진 원장은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